

영화 마스터 '초호화 세대별 스타 대결'

'감시자들' 로 호평받은 조의석 감독 신작... 김우빈·강동원·이병헌 출연 '초호화 캐스팅'

세대별로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한데 뭉쳤다. 20대 김우빈(27), 30대 강동원(35), 40대 이병헌(46)이 영화 '마스터' (감독 조의석)에 출연한다.

'마스터'는 2013년 '감시자들'로 호평받은 조의석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들과 그들을 잡으려는 경찰의 이야기를 담은 범죄 액션 오락영화다.

이병헌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조 단위 사기를 치는 데 성공하는 '진 회장'을 강동원은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엘리트 형사로 진 회장의 사기 행각을 포착하고 그는 물론 그와 엮인 비리들을 모두 파헤치려는 '김재명' 연기했다. 김우빈은 진 회장의 회사 원내트위크의 전산실장이자 그의 브레인지인 박장군을 맡아 진 회장과 김재명 사이를 오가며 생존을 모색하는 인물을 연기한다.

조의석 감독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을 모은 만큼 이들의 연기가 돋보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감시자들"은 리메이크 작품이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써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쫓고 쫓기는 상황을 그린다는 점에서 '감시자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캐릭터에 집중했다. 세 배우는 시나리오 속 캐릭터를 최선의 연기력으로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진 회장에 대해 "팔색조의 마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은 만나는 상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외모는 물론 성격과 말투까지 바뀌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병헌이 8년 만에 악인을 연기했다면, 강동원은 필모그래피 사상 처음으로 형사역을 맡았다. 강동원은 그가 연기한 김재명이 이전 작품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캐릭터이면서, 이전의 한국영화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성격의 형사라는 점에서 이번 작품을 선택했다고 했다.

강동원은 "어떤 범인을 잡는 형사는 꼭 어떤 콤플렉스가 있거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인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스터'의 김재명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며 "그는 진 회장을 잡는 게 정의이고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캐릭터라고 말했다. 강동원은 "속제를 안겨주고 자금을 쫓던 캐릭터였다고 덧붙였다.

김우빈이 연기한 박장군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진 회장과 김재명 사이를 오가며 살길을 궁리하는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관객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다. 김우빈은 박장군에 대해, "이 인물이 관객과 함께 공감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박장군의 대사나 처하는 상황이 그를 잘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맛깔나게 살려 그를 더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우빈은 이번 작품에서 두번째로 어린 배우다. "매우 부담스러운 환경이었다. 선배들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영화 '마스터' 제작발표회에서 (왼쪽부터)배우 김우빈, 이병헌, 강동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스

전북현대, 그린스쿨 컵 성료

전북현대모비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지난 12일 토요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그린스쿨 컵을 개최하며 축구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그린스쿨 컵은 전북현대 드림필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회원 비롯해 함께 응원 온 가족들을 포함하여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축제를 즐겼다. 그린스쿨 컵은 단순 축구 대회가 아닌, 축구를 통해 전북현대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었다.

이번 축구 축제는 6세부터 13세까지 각 학년, 지역에 따라 조별로 이루어졌으며, 조별 우승팀에게는 기념사인 활영과 우승 선물로 황금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해 주었다.

이번 그린스쿨 컵을 총괄한 김광수 코치는 "그린스쿨 컵이라는 대회의 이름으로 준비했지만, 결과가 중요한 승부가 아닌 아이들이 뛰어 놀며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전북현대를 통해서 축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겠다."며 말했다.

/김민근기자

리우올림픽 금메달 박인비, 포상금 3억원 수여

리우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포상금을 받는다.

대한골프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골프인의 밤' 행사를 열고 박인비에게 금메달 포상금 3억원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박인비는 지난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골프 종목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복으로서 여자골프대표팀을 이끈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도 이날 행사에서 포상금 5000만원 증서를 받는다. 대한골프협회는 올림픽에 앞서 금메달 3억원, 은메달 1억 5000만원, 동메달 1억원에, 감독은 금메달 5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2000만원 등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민근기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최민정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2관왕

한국, 이번대회서 금메달 5·은메달 4·동메달 1개 수확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19·한국체대)와 최민정(18·서현고)이 나란히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심석희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6~2017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22초38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여자 1500m 2차 레이스 메달을 쓸어들었다.

김지유(17·잠실고)가 2분22초837을 기록해 심석희의 뒤를 이어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도희(21·한국체대)가 2분22초964로 동메달을 땀다.

이어 열린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최민정·김지유·노도희·심석희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은 4분05초149을 기록, 금메달을 합작했다.

전날 여자 1000m 준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실격 판정을 받아 결승에 오르지 못한 심석희는 대회 마지막 날 금메달 2개를 쓸어들면서 2관왕에 등극했다.

전날 여자 1500m 1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도 2관왕을 차지했고, 여자 1000m에서 정상에 선 김지유도 2관왕에 등극했다.

지난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던 심석희와 최민정은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2관왕에

오르면서 '쌍두마차'의 면모를 한껏 과시했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 왼쪽 발꿈치 부상으로 난조를 보였던 심석희는 올 시즌 들어 잇따라 2관왕에 등극, 건재함을 뽐냈다.

최민정은 한국 선수들이 약세를 보이는 여자 500m에서도 결승까지 올라 43초24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땀다.

이정수(27·고양시청)는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08초646을 기록, 싱가포르(네덜란드·2분07초943)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개인 종목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던 남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1000m 금메달과 1500m 은메달을 수확하며 체면을 살렸다.

/김민근기자



KBO 지원사업 교고야구팀 70·71번째 팀 창단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마 야구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초·중·고 야구팀 창단 지원사업(이하 창단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달 3일 전국 70번째 고등학교 야구부인 경기도 부천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야구팀 창단에 이어 14일 경기도 평택의 청담고등학교가 야구부를 창단하며 70, 71번째 고등학교 야구팀이 연이어 생겼다.

이로써 한국 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70개 고등학교 야구팀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당초 KBO가 목표했던 2020년까지 전국 고등학교 야구부 70개 팀을 4년이나 앞당겼다.

KBO는 창단 지원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KBOP 매출액의 10%와 포스트시즌 이익금의 15%, NC와 kt 구단의 야구발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새롭게 창단하는 아마 야구팀에게 3년간 초등학교의 경우 3000만원, 중학교 1억5000만원, 고등학교 4억원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창단 지원사업 시작 당시 고등학교 야구부는 53개였지만 4년 만에 18개가 늘어났다. 또한, 중학교는 17개 팀, 초등학교도 5개 팀이나 KBO의 지원을 통해 새롭게 창단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응원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